

메르스 장기화...현장은 피곤하다

밤낮없는 광주지역 보건소

광주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사무실은 전화 벨소리가 끊어질 않는다. 전화기를 집어들면 대뜸 “왜 전화를 빨리 받지 않느냐”며 화가 잔뜩 난 목소리가 들린다. 이어 “순창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했던 의료진들의 자가 격리 시기를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등에서 떠도는 메르스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접한 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묻거나 열 나고 기침하는 증상을 호소하며 메르스인지를 묻는 전화가

하루 800여통 문의에 녹초...항의전화도 잇따라

자가격리 관리에 방역 활동 등 자정까지 파김치

폭주하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역 각 보건소가 메르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밀려드는 감염 상담 전화 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들 응대는 기본이고, 자가격리자들에게 대한 관리 및 생활필수품 지원 등으로 숨쉴 틈도 없다. 이른 오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업무를 보면서 파김치가 될 정도다.

온갖 항의전화도 보건소 직원들을 긴장하게 한다. 지난 4일 순창의 A(72)씨가 메

르스 확진환자로 판정된 이후 각 보건소엔 하루 평균 800통 이상의 관련 전화가 폭주했다. 민원 상담 전화를 응대하는 것 뿐 아니라 95명이나 되는 감시 대상자들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예방 홍보활동도 매일 나가야 한다. 메르스 여파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자녀가 조금만 이상해도 검사를 요구하는 등 메르스 검체 채취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긴장의 연속 광주·전남 경찰

순천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8시10분께 순천시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삼성사를 병원에 다녀온 지인을 만난 뒤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50대 남성이 시정을 찾아왔으니 도와달라는 것. 경찰은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겨 검진까지 실시했지만 메르스 증상은 없었다. 만취자의 주사일 뿐이었다.

메르스 여파로 비상이 걸리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당장,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 중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오면 비상 상황으로 간주, 행적을 추적하는 등 긴장의 연속이다.

의심증세 호소에 달려갔더니 만취자의 주사 ‘허탈’

유연비어 유포 수사에 허위 신고 등 실패없이 출동

광주의 경우 8차례, 전남에서는 소재확인 및 메르스 의심 환자 처리 등을 위해 51차례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특히 주취자들의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 때는 피로도가 더욱 심하다. 목포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9시20분 목포시 A아파트에 자가격리중인 B씨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지만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든 사실을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넘쳐나는 메르스 유연비어 확산을 막는 일도 경찰 몫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스사대는 최근 ‘의심환자가 입원해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대학생 A(21)씨를 입건하는 등 5건의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의심 환자가 입원해 휴원했다더라’, ‘의료진이 감염됐다’는 등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해당 병원측이 신고했다는 게 전남경찰 설명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17일 광주시 북구보건소 1층 메르스 선별 진료소에서 한 주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메르스가 징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0만 주민 악취 고통...범인 잡아주세요

“고무 타는 냄새 못살겠다” 수완·하남지구 年 민원 100건
광산구청 “기준치 밀돌아”... 주민들 “제대로 조사했나”

“고무 타는 냄새 때문에 못살겠어요, 범인을 잡아주세요!” 10만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광주 수완·하남지구엔 고무 타는 악취가 시도 때도 없이 풍겨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독한 악취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고무타는 냄새는 비바람이 심한 날, 여름철, 공무원이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엔 유독 심하다.

광주시 광산구에 접수되는 악취 민원은 매년 50~140건 수준으로, 대부분(90%가량)은 수완·하남지구 ‘고무 타는 냄새’에 집중돼 있다. 광산구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악취 민원이 20건이나 접수됐고, 2014년에는 48건,

2013년엔 64건, 2012년엔 138건이 접수됐다. 10여년을 고무 타는 냄새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은 악취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하남산단에서 피어오른다는 것쯤은 이미 파악한 상태다. 다만, 수완지구와 하남지구 전체를 덮을 정도로 지독한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장이 어디인지는 ‘꼭’ 잡아내지 못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폭주하는 민원에 따라 하남산단 10개 사업장을 악취 배출 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배출되는 악취의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지만 매년 기준치 아래로 파악됐다. 다만, 1

년여 전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배출한 중소기업 2곳을 적발,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기준치를 넘긴 업체 2곳은 규모와 작업 공정에 비해 수완·하남지구를 고무 타는 냄새로 뒤덮을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게 광산구 설명이다.

수완·하남지구 주민들을 괴롭히는 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주민들이 직접 조사를 나서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10개 사업장 악취 배출구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감지기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도 터져나오고 있다.

수완지구 주민 A씨는 “잡다 못해 민원을 넣었는데 매년 악취 기준치 아래라고 하니 조사나 검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전 입찰비리 연루 전기공사 업자 7억원 보석보증금 내고 풀려나

한전 입찰비리에 연루, 재판에 넘겨진 전기공사 업자에게 보석 보증금으로 7억 원을 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 법조계에서 7억원의 보석보증금은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 해석이 분분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용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를 7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방법이 아

닌, 집과 병원으로 거주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다음날 보증금을 내고 풀려나 이후 서울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보증금은 수백만~수천만원인 경우가 많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경제범죄 피고인과 관련해 역대 보증금 납부 사례가 종종 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2006년 비

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 바 있다. 2013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보석 보증금은 1억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범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보석 보증금은 7000만원이었다.

한편, A씨와 함께 5억원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 B씨는 보증금을 내지 않아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한전 입찰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전기업체 대표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보석 신청도 예상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생후 18개월 아들 육조 빠뜨려 숨지게 해 장성 ‘조울증 엄마’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7일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육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여·3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보호·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한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게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 부모의 집 마당 연못과 옥실 옥조에 아들을 잇따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부터 2년간 조울증을 앓다가 치료한 박씨는 지난해부터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다시 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어설플 금은방 도둑...비상벨에 화들짝
○...금은방을 털려던 20대 남성 2명이 비상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곧바로 달아났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에 걸림.
○...1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백모(24)씨 등 2명은 지난 9일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A금은방에 설치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낸 뒤 금은방에 침입하려고 출입문을 건드리는 순간, 경비업체의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거리에 울리자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백씨 등은 범행 장소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세워둔 차량에 몸을 숨겼는데, 도주 경로에 설치된 CCTV를 보며 추적인 경찰에 붙잡힌 뒤 순순히 범행 일체를 자백.
/박기용기자 pboxer@

요양(병)원,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연수원, 최적지

투자강력 추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 1분거리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요양(병)원, 연수원, 별장, 수련원, 종교시설,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등등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1억(일시불 조정가)

공동투자 하실 분도 모심!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단지, 담양댐, 금성펜션단지, 담양리조트

← 금성 → 금과 →